

11쪽 각주

2 황주(黃州) 도화동(桃花洞) : 심청이 태어나서 자란 황해도 황주. 국문학자 장지영은, “중국 호북성에 속한 부(府)인데, 황주부의 황안현에 도화진(桃花鎭)이란 마을이 있고, 황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남성 상덕부 무릉현이 있으므로, 중국의 지명이다”라고 했다.(장병욱 외 감수, “판소리 다섯 마당”, 한국 브리태너커 회사, 1982, 87쪽 각주 3) 여기서 상덕부 무릉현은 작품의 중반부에 나오는 배경인 무릉촌(武陵村)을 이른다.

->

2 황주(黃州) 도화동(桃花洞) : 국문학자 장지영은, “중국 호북성에 속한 부(府)인데, 황주부의 황안현에 도화진(桃花鎭)이란 마을이 있고, 황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남성 상덕부 무릉현이 있으므로, 중국의 지명이다”라고 했다.(장병욱 외 감수, “판소리 다섯 마당”, 한국 브리태너커 회사, 1982, 87쪽 각주 3) 여기서 상덕부 무릉현은 작품의 중반부에 나오는 배경인 무릉촌(武陵村)을 이른다. 한편 황해도 황주라는 주장도 있다.

13쪽 각주

22 핏담 : 불명. “짜담”이나 “찌사담누비”와 같은 형태가 많고 「심청가 소장본」에는 “외울 뒷기 잔누비질 고누비”(배연형 엮음, 『춘향가 심43장정명기 청가 소리책』, 동국대학교출판부, 2008, 365쪽)의 형태가, 「이선유 창본 심청가」에는 “돌드기 쪽쪽누비 양누비”(김진영·김현주 외 편저, 『심청전 전집』 1, 박이정출판사, 1997, 53쪽)의 형태가 있는 정도이다.

또는 전주의 무지내(巫知來, 큰무당)였던 성화춘(1891~1979)의 무가(巫歌) 가운데 『완자문 괴단염낭용모세양경명주사』(「전라도 무가」, 경북대 김문기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고전의 세계 누리집 gojun.knu.ac.kr, 전라도 손남국 무가 게시물 첨부파일, 22쪽, 2019년 4월 16일 검색)에서 볼 수 있는 괴단두루주머니(염낭)가 변형된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. 왜냐하면 몇몇 춘향가 사설에서도 ‘괴단춤치(주머니)’의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.

->

22 핏담 : 불명. “짜담”이나 “찌사담누비”와 같은 형태가 많고 「심청가 43장(정명기 소장본)」에는 “외울 뒷기 잔누비질 고누비”(배연형 엮음, 『춘향가 심청가 소리책』, 동국대학교출판부, 2008, 365쪽)의 형태가, 「이선유 창본 심청가」에는 “돌드기 쪽쪽누비 양누비”(김진영·김현주 외 편저, 『심청전 전집』 1, 박이정출판사, 1997, 53쪽)의 형태가 있는 정도이다.

또는 전주의 무지내(巫知來, 큰무당)였던 성화춘(1891~1979)의 무가(巫歌) 가운데 『완자문 괴단염낭용모세양경명주사』(「전라도 무가」, 경북대 김문기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고전의 세계 누리집 gojun.knu.ac.kr, 전라도 손남국 무가 게시물 첨부파일, 22쪽, 2019년 4월 16일 검색)에서 볼 수 있는 괴단두루주머니(염낭)가 변형된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. 왜냐하면 몇몇 춘향가 사설에서도 ‘괴단춤치(주머니)’의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.

14쪽 1줄 …… 접기배자 …… -> …… 접기 배자 ……

18쪽 각주 75 …… 산지(餼子/餼子) …… -> …… 산지(餼子/糶子) ……

23쪽 각주 129 정신(正身) : 생신(生身), 의생신(意生身), 부처나 보살이 중생(衆生)을 제도(濟度)하기 위해 변화한 신체. 사설에 따라 전신(全身, 몸 전체)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. -> 달 정신(情神) : 월정신(月情神, 달처럼 밝은 정신세계). 정신(正身,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모에 의탁하여 태어나는 육신)이나 전신(全身) 또는 “유수금일(流水今日) 명월전신(明月前身)”에서 따온 전신(前身)일 수도 있다.

30쪽 1줄 …… 승불 …… -> …… 삼불 ……

30쪽 각주

182 승불(勝佛) : ‘보승불(寶勝佛)’의 변형인 듯하다. 금강계(金剛界) 만다라(曼荼羅) 팔엽연대(八葉蓮臺)의 남방월륜(南方月輪) 중앙에 위치해 있는 부처를 말한다. 일체의 재물과 보배를 맡은 부처이다. ‘보생불(寶生佛)’이라고도 한다.

또는 ‘쌍불(生佛)이나 ‘살불(薩佛)’의 변형일 수 있다. 여기서, 쌍불은 쌍불대왕(生佛大王)을 뜻한다. 열다섯 살이 되기 전 어려서 죽은 영혼들을 다스리며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아이를 점지해 준다. 그리고 살불은 ‘보살과 부처’를 뜻한다.

->

182 삼불(三佛) : 삼불 제석(帝釋)은, 무당이 모시는 삼위(三位)의 불신(佛神). 무당의 신당에 무신도로 그려져 있거나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처에 그려진 세 부처의 그림이다. 삼불의 뜻은 다음과 같다. 극락에 있는 아미타불, 관세음보살, 대세지보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. 둘째, 부처의 신체를 그 성품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 것. 법신불, 보신불, 응신불이다. 이는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, 아미타불, 석가모니불을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선종의 전통을 따라 비로자나불, 노사나불, 석가모니불을 이른다.

31쪽 각주 187 …… 일포(一胞)요 두 팔꿈치를 합해 삼포요 두 …… -> …… 일포(一胞)요, 두 팔꿈치를 합해 삼포요, 두 ……

43쪽 2-3줄 …… 곱 씨 …… -> …… 곱씨 ……

44쪽 각주 287 영이기가 …… -> 영이기가(靈輻既駕) ……

44쪽 각주 289 …… ‘송별(送別)’의 구절. “춘초연년록(春草明年綠) 왕손귀불귀(王孫歸不歸, 떠난간 그대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).” (한시 - 13. 2. 참고) -> …… ‘송별(送別)’에서 “춘초명년록(春草明年綠, 저 풀들은 내년 봄에도 다시 푸르겠지만) 왕손귀불귀(떠난간 그대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)”를 차용했다. (한시 - 13. 2. 참고)

48쪽 5줄 …… 박전허나 …… -> …… 박전 허나 ……

51쪽 각주 327 …… “죽상지루나가멸(竹上之淚乃可滅, 대나무 위의 눈물 사라지리라)을 차용한 …… -> 327 …… “죽상지루나가멸(竹上之淚乃可滅, 대나무 위의 눈물 사라지리라)”을 차용한 ……

63쪽 4줄 …… 시비따라 …… -> …… 시비 따라 ……

78쪽 각주 461 …… 蓼蓀(육아) …… -> …… 육아(蓼蓀) ……

97쪽 각주 551 …… 33. 1. …… -> …… 24. 1. ……

97쪽 각주 552 …… 전남 방언. -> …… 전북 방언.

97쪽 각주 557 …… 유유의 …… -> …… 유유가 ……

98쪽 각주 561 …… 도판도판 …… -> …… 도판 ……

100쪽 각주 575 …… 22. 1. 참고) “애내성중만고심 …… -> …… 22. 1. 참고) “애내성중만고심 ……

각주 575 …… 애내일성산수록(煙銷日出不見人, 삿갓 노 젓는 소리에 산과 물이 온통 파랑기만 하네) …… -> …… 애내일성산수록(欸乃一聲山水綠, 삿갓 노 젓는 소리에 산과 물이 온통 파랑기만 하네) ……

100쪽 각주 576 장사 …… -> 장사(長沙) ……

101쪽 각주 583 …… 31. 1. …… -> …… 23. 1. ……

101쪽 각주 586 …… 이수중분백로주(二水中分白鷺洲)는 …… -> …… 이수중분백로주(二水中分白鷺洲) ……

109쪽 각주 638 …… ‘어부사(漁夫)’에 …… -> …… ‘어부(漁夫)’에 ……

118쪽 각주 706 …… 아래 노닐세) …… -> …… 아래 노닐세) ……

119쪽 각주 708 …… 어부가(漁夫歌)의 …… -> …… 어부기(漁父歌)의 ……

119쪽 각주 709 …… 이현보의 ‘어부기(漁夫歌)’에는 …… 흘러가다)라는 …… -> …… 이현보의 ‘어부기(漁父歌)’에는 …… 흘러가다)라는 ……

120쪽 각주 719 …… 玄冥, 西海 …… -> …… 玄冥, 西海 ……

123쪽 각주 743 …… 24. 1. …… -> …… 25. 1. ……

130쪽 3줄 …… 옥진 부인 …… -> …… 옥진부인 ……

137쪽 각주 838 기화요(琪花瑤草)초 …… -> 기화요초(琪花瑤草) ……

139쪽 각주 852 …… 부용작악량변개 …… -> …… 부용작악양변개 ……

147쪽 8줄 하라 만일 -> 하라, 만일

147쪽 9줄 봉직파직 -> 봉고파직

164쪽 4-5줄 녹수경을 지내어 낙수교을 건너 -> 녹수경을 지내어 낙수교를 건너

164쪽 각주 980 '조발소주(早發韶州)' -> '조발소주(早發韶州)'

167쪽 각주 1001 목공(穆公 진나라 9대 왕) -> 목공(穆公, 진나라 9대 왕)

173쪽 6줄 흥몽이요?" -> 흥몽이요?"

174쪽 2줄 불관이요" -> 불관이오"

176쪽 11줄 못 하옵고 -> 못하옵고

182쪽 3줄 태고 적 -> 태곳적

182쪽 10줄 심부원군..... -> 심 부원군.....

183쪽 5줄 심부원군..... -> 심 부원군.....

184쪽 9줄 심생원..... -> 심 생원.....

185쪽 6줄 장창부락 -> 장창불락

185쪽 각주 1076 장창부락(長唱不樂) -> 장창불락(長唱不樂)

187쪽 각주 1079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을 통틀어 유관순 열사에 관한 최초의 추모곡이다. -> 유관순 열사에 관한 추모곡이다.

189쪽 각주 1080 일제는 러 · 일전쟁(1904년)을 발발하고 ->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

196쪽 1줄 언중유순 -> 언정이순

196쪽 각주 1115 언중유순 순하다. -> 언정이순(言正理順) : 말이나 이치가 바르고 옳다.

196쪽 각주 1119 제 26대 -> 제26대

200쪽 1줄 선언를 -> 선언서를

209쪽 7줄 범람한 -> 범란한

209쪽 9줄 이말을 -> 이 말을

214쪽 2줄 판결 언도1158 -> 체형1158 언도

각주 1158 언도(言濼) : 한다. -> 체형(體形) : 징역이나 금고 따위,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. 다른 뜻은, 사람의 신체에 직접 형벌을 가하다. 또는 그렇게 하는 형벌.

216쪽 2줄 추연1160히 -> 추연히1160

217쪽 1줄 임명히"니 -> 임명하니

220쪽 12줄 육장이 -> 죽탕이

225쪽 13줄 小旻之什(소민지십) 蓼莪(육아) -> 소민지십(小旻之什) 육아(蓼莪)

226쪽 18줄-227쪽 1줄 안색초취 형용고고 -> 안색초취 형용고고

230쪽 4-5줄 한 줄 띄어야 합니다.

241쪽 14-15줄 한 줄 띄어야 합니다.

243쪽 5-6줄 한 줄 띄어야 합니다.

246쪽 12-13줄 노닐새, -> 노닐새,

258쪽 17-18줄 한 줄 띄어야 합니다.

276쪽 13-14줄 15. 1. 원화십일년자랑주소지경(元和十一年自朗州召至京), 희증간화제군자(戲贈看花諸君子) -> 15. 1. 원화십일년자랑주소지경(元和十一年自朗州召至京), 희증간화제군자(戲贈看花諸君子)

272쪽 7줄 춘초연년록(春草明年綠) -> 춘초명년록(春草明年綠)

279쪽 10-11줄
待來竟不來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내 오지 않고
落花寂寂委青苔 낙화만 조용하게 이끼 우에 시드네.
->
待來竟不來(대래경불래)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내 오지 않고
落花寂寂委青苔(낙화적적위청태) 낙화만 조용하게 이끼 우에 시드네.

283쪽 9줄 (부지하처적상군) -> (부지하처조상군)

288쪽 11줄 17. 7. 원정 -> 17. 7. 원정(怨情)

296쪽 9-10줄 제 1곡부터 제 9곡까지 -> 제1곡부터 제9곡까지

297쪽 1줄 누락 -> 23. 최희(崔顥, 704?~754)

23. 1. 황학루(黃鶴樓)
昔人已乘白雲去(석인이승백운거) 옛 선인 이미 황학 타고 가버리고
此地空餘黃鶴樓(차지공여황학루) 이 땅에는 그저 황학루만 남아 있다.
黃鶴一去不復返(황학일거불부반) 황학은 한번 떠난 후로 다시 오지 아니하고
白雲千載悠悠(백운천재공유유) 흰 구름만 천년토록 여전히 떠 있다.
晴川歷歷漢陽樹(청천력력한양수) 맑은 날 강에는 한양의 나무들이 뚜렷하고
春草萋萋襄陽州(춘초치치양무주) 향기로운 풀들은 앵무주에 무성하다.
日暮鄉關何處是(일모향관하처시) 해는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메뇨?
煙波江上使人愁(연파강상사인수) 강 위의 안개가 사름겹게 하노라.

황학루에는 여러 전설이 있다. 황자안(黃子安) 또는 비문위(費文禰)란 신선이 황학(黃鶴)을 타고 이곳을 왔었기 때문에 황학루라고 했다는 설이다. 이 시는 천고의 절창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. 참고로, 앵무주는 창장 강(長江) 가운데 삼각주 섬인데 명대에 수몰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.

297쪽 2-3줄 한 줄 붙여야 합니다.

297쪽 3줄 23. 1. -> 24. 1.

297쪽 10줄 자자히 -> 자자이

298쪽 3줄 24. 1. -> 25. 1.

298쪽 15-16줄 해석하기도 있다. -> 해석하기도 한다.

뒤표지 날개 4줄 공연등 -> 공연 등

뒤표지 5줄 100주년이 -> 100주년을